

서평

한국불교사 연구를 일단락 짓다

-정병삼, 『한국 불교사』(푸른역사, 2020)-

박 광 연*

1.

불교佛敎의 역사는 일찍부터 승전僧傳, 사지寺誌 등의 형태로 정리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학문의 도입 이후의 불교사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20세기 초 불교 지식인들은 일본을 통해 근대적 방법론을 배웠고, 조선의 불교사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한국인이 쓴 통사의 형태의 한국불교사는, 권상로權相老의 『조선불교약사朝鮮佛敎略史』(1917),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1918)가 시작이다. 이들은 조선의 찬란한 불교 유산을 정리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으로 키우고자 하였다.¹⁾ ‘연보’ ‘집성’ ‘자료집’의 성격이 다분하지만, 실증과 비판에 의해 객관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²⁾ ‘근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불교약사』를 전면 개정한 권상

* 朴姣娟,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사학전공 조교수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8..191>

1) 김영진, 「한국 근대 불교학 방법론의 등장과 불교사 서술의 의미」, 『한국학연구』 23, 2010, 103~106쪽.

2) 김용태, 「역사학에서 본 한국불교사 100년」, 『불교학보』 63, 2012, 198쪽.

로의 『조선불교사개설朝鮮佛教史概說』(1939), 김영수金映遂의 『조선불교사고朝鮮佛教史稿』(1939)가 그 뒤를 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사상사思想史의 범주 속에서 불교사가 함께 다루어졌다. 현상윤玄相允의 『조선사상사朝鮮思想史』(1949)에서 상고上古, 중고中古, 근세近世 각 시기마다 불교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김득황金得桴의 『한국사상사』(1958/1973)에서는 불교사상시대를 특정하였다. 이후 문화사대계, 사상사대계와 같은 공동 작업을 통해 불교사가 정리되었다.

우정상·김영태의 『한국불교사韓國佛教史』(1968, 신홍출판사/1969, 진수당), 안계현의 『한국불교사연구韓國佛教史研究』(1982, 동화출판공사) 등 불교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 한국불교사 집필이 이어졌고, 한편에서는 불교에만 매도된 연구를 지양하며 사상이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사상사적 입장에서 불교사를 서술하였다. 화엄사상과 절대왕권, 진표의 미륵신앙과 농민 봉기 등 주로 고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사회사상사’라 불리는 일련의 연구들에 대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사상사학의 전개를 설명하면서 고대 불교사를 둘러싼 이 논쟁을 ‘사회사상사’ vs ‘교리사’라는 구도로 설명한 글을 보았는데,³⁾ 여기서 ‘교리사’라는 표현에 멈칫하게 된다. ‘교리사’라 분류되는 연구들이 단순히 불교신앙의 입장에서 불교 교리를 해명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사상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외면한 것도 아니다. 단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불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학사상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유학에 대한 이해가 기본인 것처럼, 어쩌면 당연한 지적이었다. 이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한국 불교사』(이하 ‘이 책’이라 함)를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이 사상과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무한한 확장성을 지님을

3) 노관범, 「한국사상사학의 성찰」, 『한국사상사학』 52, 2016, 141쪽.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2020년 3월 푸른역사에서 출판된 『한국 불교사』. 이 책의 저자인 정병삼 선생님의 박사논문은 <의상 화엄사상 연구 : 그 사상사적 의의와 사회적 성격>(1991)이다. 이 박사논문에서 의상의 화엄사상 자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의상과 신라 왕실의 관계 및 의상이 부석사에서 이끌었던 교단의 사회사적 의미 또한 주요하게 논하고 있다. 저자의 불교사 연구는 사상(화엄)과 신앙(관음신앙, 미타신앙 등)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신라시대의 경우 8세기의 불교 문화, 9세기의 불교 결사, 혜초 같은 구법승 및 일본과의 불교 교류 등을 연구하였고, 고려시대의 경우 팔관회, 고려대장경, 일연비, 문수사장경비(文殊寺藏經碑) 등의 비문, 『삼국유사』, 『백화도량발원문약해』 등의 저술, 불교조영물의 발원문 등을 분석하였다. 신라 불교사 전공자가 고려시대를 함께 다루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조선시대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데, 저자는 16세기 몽산 저술, 18세기 승려 문집, 19세기 불교계와 불교예술의 변화, 조선후기 사원의 문화, 백파와 초의의 선 논쟁, 정약용의 불교 이해 등의 조선시대 불교사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 책 곳곳에 저자의 그 간의 연구들이 녹아있다.

이 책이 저자의 연구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730여 쪽이라는 책 두께가 증명하듯, 이 책에는 불교사에 대한 최근 연구들이 망라되어 있다. 저자의 입장에 따라 받아들여진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에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최근의 한국불교사에 대한 책 가운데 『테마한국불교』 시리즈(동국대 HK연구단)와 비교가 된다. 『테마한국불교』는 2013년 1권을 시작으로, 올해 총 7권이 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최근 연구를

반영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불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도에서 발생해 중국 등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지 1,700여 년이 지난 한국 불교의 글로컬리티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양한 테마별로 한국 역사 속의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⁴⁾ 그런데 『테마한국불교』가 역사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별로 저자가 달라 한 권의 책에서조차 일관된 시각을 찾기 어렵다. 또한 테마별로 수직적 흐름을 설명하는 데 급급하여 시대의 숨결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불교 전문 역사학자 정병삼 교수의 역작…한국불교사’(뉴스1, 2020.3.26.)
‘한국불교, 호국·기복 아닌 조화와 융합’(한겨레신문, 2020.3.27.)

신문에서 이 책을 소개한 문구다. ‘역사학자의 한국불교사’ 이 책의 차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현이다. 근대 학문으로서의 불교사 연구가 시작된 지 10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에 뿌리를 둔 연구자의 한국불교 통사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역사학에서 사상사 연구는 사상의 형성·변용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고,⁵⁾ 불교 관련 기록들을 철저히 사료史料로서 다룬다는 점에서 불교학적 접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책을 읽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이 무렵’, ‘이런 정세에 힘입어’ 등의 표현을 종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이 책은 서설과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설에는 한국불교사의 주요 논제들을 담고 있다. ① 유교·도교·토착신앙과의 관계, ② 불교와 국가의

4) 김종욱, 『테마한국불교 1』, 동국대 출판부, 2013, 5~6쪽.

5) 조명제, 「역사학으로서 불교사학의 지형과 방법」, 『한국불교학』 77, 2016, 69쪽.

관계, ③ 추복과 현세신앙, ④ 한국 불교의 특성-조화와 융합, ⑤ 한국 불교의 종파, ⑥ 오교-양종이 소재목이다. 기존에 한국 불교하면 늘 거론되던 ‘호국 불교’ ‘통불교’라는 용어는 없다.

각 부는 1장 또는 1~2장에서 시대 별 불교사의 전개 및 주요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뒤, 다음 장에서 세부 주제에 대한 심화 설명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자가 각 부에서 어떤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불교사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에 주목해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부 ‘삼국시대-불교의 수용’에서는 1~2장에서 불교 수용 이전의 토착신앙과 불교의 전래, 수용 후 사회 변화를 설명한 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의 불교를 각 장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국의 주요 사원과 불상, 그리고 일본으로의 전파도 설명하였다. 2부 ‘통일신라-불교사상과 신앙의 정립’에서는 1장에서 전쟁 이후 신라와 발해에서의 불교 전개를 설명한 뒤, 발달한 교학, 유행했던 신앙, 사원과 교단, 선 불교의 수용, 불교의 대외 교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3부 ‘고려 전기-사상의 다양성과 불교’에서는 고려 전기 불교의 특징을 귀족불교라 정의하고, 교단과 사원 중심으로 서술한다. 사상 자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불교 행사, 나한신앙 등의 신앙, 대장경과 교장의 간행을 소개하고 있다. 4부 ‘고려 후기-사회 변동과 불교’에서는 수선사, 백련사 같은 결사의 정신과 간화선, 임제선 같은 새로운 선종의 수용을 설명하면서 사상을 다루고 있을 뿐, 그보다는 대장경, 다양한 조영물과 신앙 활동, 척불론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다음 5부, 6부, 7부는 저자의 노고가 더욱 돋보이는 부분이다. 최근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책에는 이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5부 ‘조선 전기-성리학 사회와 불교’에서도 1장에서 ‘사원의 축소’부터 ‘의승군의 활동’까지 조선 전기의 불교 관련 사건 및 주요 인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은 불교

교단의 위축이라 말하면서도, 불교신앙이 왕실과 사족을 중심으로 지속되었고, 불서 간행도 성행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6부 ‘조선 후기-산사 불교의 독자성’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문과 형성과 사원 중창에 수반된 새로운 문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지막 7부에서는 일본 불교의 침투와 이에 대응한 불교 지식인들의 노력,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교의 근대화, 해방 이후 불교계의 갈등과 실천불교 운동까지 설명하고 있다.

4.

730여 쪽의 지면에 1,700년의 한국 불교사를 다 소개할 수 없듯, 불과 몇 쪽 분량의 서평에 방대한 이 책을 다 담아내지 못함이 안타깝다. “이 책에서 극히 일부밖에 활용하지 못한 불교문화에 대한 근자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모은 한국불교문화사도 나와야 하고” “5년마다 개정판을 쓰고 싶다”라는 저자의 고백은 이 책이 저자의 마지막 통사가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준다. 이 책은, 그리고 이 고백은 후학들에게 따뜻한 채찍으로 다가온다. 필자의 경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근대 역사를 보다 풍성하게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사학은 한국사에서 독자적인 영역과 주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거나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⁶⁾는 비평에 할 말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역사 속에서 불교는 신앙이나 이데올로기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역 등등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다. 남아 있는 불교 관련 문헌 자료, 물질 자료가 많고, 계속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불교는 한국뿐만

6) 조명제, 앞의 논문, 2016, 54쪽.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수용했다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장점이다. 때문에 불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융합' 연구를 진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주제이다. 당장 '불교사학'을 독자적 영역으로 성장 시키진 못하더라도, 타 분야의 연구자들이 불교사 연구들을 읽고 불교 관련 자료들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다. 20세기 초 이래 120여 년간의 한국 불교사 연구는 이 책에서 일단락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문단을 써내려 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